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42, 1-4, 6-7	제2독서	사도행전 10, 34-38	복음	루카 3, 15-16, 21-22
--------	------	----------------------	------	-------------------	----	-----------------------

“이 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교회는 연중 제 1주일을 ‘주님 세례 축일’로 정하여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건너가시는 주님의 새 이정표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세례를 상기함으로써 신앙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커다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일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명예나 권력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빈 주머니가 가득 채워지는 듯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이내 텅 비어버리고 마는 마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삶은 또다시 고달파 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란 빈 주머니를 채우려는 노력의 연속인 듯합니다.

가만히 마음을 열고 나의 주머니 속을 들여다봅시다.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혹시 새는 구멍은 없는가? 이 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 17)

이 복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고 베풀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빈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며,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겸손되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녀가 되는 은총입니다.

주님의 세례 축일을 맞아 참으로 풍요로웠던 우리의 처음 시작을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세상과 이웃들에게 빛과 희망을 심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텅 빈 주머니가 하느님 사랑이라는 열매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자	전 령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월 14일 (화)	연중 제 1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대축일 헌금	\$ 1,343.00 \$ 1,420.00
1월 15일(수)	연중 제 1주간 수요일	오전 8시	교 무 금 미사예물	\$ 5,130.00 \$ 1,384.00
1월 16일(목)	연중 제 1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성 물 방 도네이션	\$ 129.00 \$ 150.00
1월 17일(금)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오전 10시	기타수입	\$ 270.00
1월 18일(토)	연중 제 1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9,826.00
1월 19일(주일)	연중 제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4명 성인: 176명
교무금 봉헌자	이주엽(1-12/2025)이유빈(1-3)김경숙, 김팔봉, 김길록, 이의웅(1-2)김순애, 박원상, 성영진, 김상돈, 김규대, 지복원, 박용호(1)윤준호(12/2024, 1)안옥자, 김광희(10-12/2024)이복임(5-12/2024)희숙케닉(1-12/2024)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님 세례 축일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마태 3,16-17)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 위로 내려왔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세례받기 위해 강물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과 유대를 맺은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는 것으로 속죄와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간과 연대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의 모습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1월 로마 시스티나 경당에서 주님 세례 축일 관례에 따라 교황청 직원 자녀들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며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의 인간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예수가 인간성이라는 강물에 자신을 담가 온 인류에 자신을 드러낸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주님 세례는 ‘공현’ (公顯)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 세례는 ‘카나의 혼인 잔치’ (요한 2,1-11)와 더불어 공현,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사명을 시작하는 공생활의 선포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전례력 개정에 의해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로 옮겨졌는데요. 주님 세례 축일으로써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를 주던 관습과 관련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세례 예식 모습의 흔적은 성경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사도 8,26-39)에는 ‘물로 내려가 세례를 주었다’ 라고 언급돼 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사도 8,15)에서는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 이외에 3세기까지 세례 기록을 담은 문헌에는 「디다케」, 「솔로몬의 송가」, 헤르마스의 「목자」 등이 있는데요. 「디다케」에 의하면 세례는 ‘살아 있는 물’ (흐르는 물)로 줘야 하지만 살아 있는 물이 없을 때는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찬물이 없을 때는 더운물로 세례를 줄 수 있으며,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세례 후보자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붓는다는 규정도 있어 물에 잠그는 세례뿐만 아니라 물을 붓는 주수식(注水式) 세례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에는 ‘화관’ 과 ‘흰 옷’ 이 언급돼 있어, 초기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성취된 삶의 영광과 닮은 순백의 새 옷을 입혀주는 관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과거의 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며, 하느님을 향한 자유와 해방으로 끊임없이 나아 가는 것에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2항은 세례성사를 견진성사, 성체 성사와 함께 ‘입문의 성사’ 로 소개하며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법 제217조에는 세례받은 이의 구체적 의무로서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고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며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도 지니게 됩니다.

교회법 제204조는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고 규정해, 세례받은 이가 이 세상에서 실행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 박지순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사무장 201-774-7489/전례부장 916-990-6531)◎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박봉준 프란치스코 영육건강	익명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아들 Shawn Hovey 영육간의 건강	김평옥 모니카
연	김병길 베드로 영혼	김명희 수산나 가족	생	임채봉 안드레아, 임실비아 가정	임그라시아
연	권흥주 득인 베드로의 영혼	박니콜, 박수옥 글라라	생	고원석 바오로, 고공자 벨라뎃다 가정	임그라시아
연	이옥련 마리아 영혼	이서향 미카엘라	생	성가대 영육간의 건강	진엘리사
연	시아버님의 영혼	금외주 루시아	생	전우성 베드로 영육간의 건강	전병옥 골롬바
			생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들 위하여	셋별 Pr.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오늘 주님세례축일로 전례가 연중시기로 바뀝니다. 세례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일상생활을 신앙생활로 변화시켜갑시다.
2. 2025년도 전반기 사목총회 개최
일시: 19일(주일) 점심식사 후 친교실
대상: 모든 사목위원, 각 구역장/단체장 등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월 사목회의/구역장 회의는 2월부터 합니다.
3. 설 합동위령미사 신청 안내
일시: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중
미사신청: 1월 24일(금)까지 사무실/전례부
4. 초축복식 (주님봉헌축일) 안내
일시: 2월2일(주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해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성물방에 신청바랍니다.
5. 2025년 견진 신청
일시: 5월 25일 (주일)
1월 26일 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대상 : 만 16세 이상 견진을 받지 않은 신자
교육 : 성령 세미나로 대체 (5월초)
6. 본당 꾸리아 평의회
일시: 12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모든 브레시디움 4간부 참석 바랍니다.

7. 구역모임 및 단체활동

6구역 : 18일(토) 오후 5시반/임정남실비아 (택)
8구역 : 12일(일) 주일 미사후 요한방

8. 사랑의 급식 안내

1월 19일 (주일) : 8구역

메뉴 : 소고기 미역국

금액 : \$5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9. 감사합니다.

사랑의 급식 도네이션 : 윤재경 알베르도 \$100

달력/주보광고 : 임정남 실비아 LEE' S HAIR \$150

10.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장대석 요셉 형제님(양경민 안드레아 매형)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도와 장례미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24년도 교무금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성당 유지/보수/발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Donation Statement 발급 (사무실)

2024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화답송



주 - 님 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전례봉사	주님 세례 축일 (1/12)	연중 제2주일(1/19)	연중 제3주일(1/26)	주님 봉헌 축일(2/2)
미사해설	곽유경 / 김진영	지혜진 / 전병옥	박문교 / 최금주	오민정 / 정미정
독서	9시	박예진 / 박희현	민마이클 / 박모란	박예진 / 오은수
	11시	김동현 / 김혜진	윤재경 / 윤은실	김규철 / 김희정
복사	9시	지마리 / 허준희	곽아인 / 허준희	황건영 / 곽아인
	11시	김영준 / 송돈희	김규철 / 박지은	윤지현 / 권오승
헌금위원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창조주의 어머니Pr.	천상의 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김나윤 프리스카(201-774-7489) E-Mail:prisca0118kim@gmail.com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 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